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http://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ty](https://facebook.com/groups/yagfynt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24)



(후렴)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제 2 독서] ..... 콜로 3,1-4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1-9

## [성가안내]

- 입당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 봉헌성가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 성체성가 [128] 만인의 왕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제2독서 후 바칩니다.

##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4월17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욱 알버트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정동주유스토, 조소연 데레사, 한서희데레사, 정은철 프란치스코	마르티나, 김유화
4월24일	박기웅 사도요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시아	유정욱 유스티나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장동엽 에드문드

●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모회 주관으로 공동체 여러 단체에서 협력하여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며 공동체 모든분과 기쁨을 나누고자 '부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 '부활 삼중 기도' - 부활 시기 동안

오늘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부활 삼중 기도'를 바칩니다. '부활 삼중 기도'는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어서서 바칩니다.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동주 유스토 부장 917-750-6432
- 김승현 마리아부부장,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부부장, 신부님

● 봄학기 청년 성서모임 개강안내 'Zoom Meeting'

- 대 상 : 세례 받은 청년
- 신청마감 : 4월 17일
- 첫모임 : 5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줌링크 추후공지)
- 모집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 대표봉사자 김진섭 야고보 201-912-7577

● 청년 레지오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25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바자회'

- 일정: 6월 5일
- 각 단체들과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뉴욕 대교구 분담금 자유로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의 분담금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 사 봉 헌

연기사

전 마지 마가렛  
 최 순자 막달레나  
 현영희, 한정수 비오, 이종란 크리스티나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정진 안토니오  
 김 정숙  
 김 정숙  
 이 옥녀  
 유 금동  
 민 병택 베드로  
 김 용기 요셉  
 민 경하, 경 복순  
 박 난성 프란치스코  
 이 철우 스테파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영혼들  
 김 영우 요셉, 강 견대 마리아 부부

봉헌

가족  
 장 수림 에피파니아  
 한 데레사, 안나  
 이은경 헬렌  
 이 미진 조앤 그레이스  
 한 동훈  
 울뜨레아  
 이 경자 울리안나  
 유 미경 크리스티나  
 유 경자 데레사  
 경 가밀라  
 경 원유 프란치스코  
 민 완준 필립보  
 양 미숙 마리아  
 오 병민, 이 가을  
 안 영옥 분다  
 김 지영 유스티나

생기사

김 은송 누시아 (생일 축하)  
 신 호균 안토니오 (합격을 위해)  
 신 호균 안토니오  
 김 계현 소화 데레사 (생일 축하)  
 그레이스 남 & 폴 남 (성가정 위해)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봉헌

이 지훈 아녜스  
 강 혜순 소피아  
 신 호균 안토니오  
 이 지훈 아녜스  
 이 은경 헬렌  
 한 동훈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이경희 (미카엘라)	

[2022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스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요한 20,1-9 )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부활하시다’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빈 무덤 전승’을 창조론으로 해석하며 부활을 ‘새 창조’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이 구절로써 창세기의 “빛이 생겨라” 하셨던 창조의 첫째 날을 가리켰습니다.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시간이 빛이 생기기 직전의 어둠과 같은 것이고, 곧 동이 트는 빛의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의 서문에서도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분, 모든 이를 밝게 비추시는 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빛의 육화’를 말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부활은 ‘육화된 빛이신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새 창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장소에 있던 ‘정원’의 새 무덤이라고 요한이 수난기 끝에 기록했던 그 무덤입니다. 요한은 이 ‘정원’을 ‘빈 무덤’과 함께 새 창조의 표징을 사용했습니다. “‘새 아담’이 살아나서 ‘새 정원’으로 걸어 나오자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이것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 보았다”는 것이 요한이 편집한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심지어 사랑받던 제자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말씀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이 만들어 낸 생각이 아니고 성경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사실 위에 정립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638-639)

세례성사를 받고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를 오늘의 제2독서 콜로새서에서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속한 속된 것을 멀리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 집에 가서 설교하듯이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 <부활시기>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일이 한 주간의 절정이듯,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례 주년의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이겨 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이며 희망이다. 주님 부활대축일은 하느님의 권능과 주님 부활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은 가장 장엄하고 중요한 축일이며, 또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3세기 초까지 교회에는 이 부활 축일뿐이었다. 부활 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이어진다. 교회는 ‘파스카 시기’라고도 하는 이 부활 시기를 마치 ‘하루의 축일’ 또는 하나의 ‘큰 주일’처럼 지내는데, 예로부터 은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받아들여 왔다. 초기 교회에서는 부활 축제를 파스카 성야에서 시작하여 그다음 해가 질 때까지 지내다가,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고자 ‘부활 팔일 축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또다시 부활을 기념하는 6주간의 전례가 더해져 오늘의 부활 시기가 완성되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의 날짜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교회는 춘분이 지나고 보름날이 지난 다음에 오늘 첫 주일로 결정하였다. 부활시기에는 사순 시기 동안 금지하였던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을 다시 노래하며, 전례적으로도 감사와 기쁨을 드러낸다.

부활 시기에는 평일에도 전례를 거행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파스카 초를 제대 옆에 켜 놓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전례 개혁 이후로는 부활 시기가 끝난 다음에도 세례 때나 장례 미사 때에 파스카 초를 밝히도록 하였다. 부활시기에 사제가 입는 제의의 색깔은 기쁨과 새로 태어남을 나타내는 흰색이다.